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201-232
<https://doi.org/10.29212/mh.2019..113.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축조방식과 성격*

이정범**

1. 머리말
2.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자료 축적
 - 가. 1994년 이전 자료
 - 나. 1994년 이후 지표조사
3.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발굴조사 현황
 - 가. 아차산 일대
 - 나. 경기북부지역
 - 다. 한강이남지역
4.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고구려 보루의 축조방식과 성격
 - 가. 성벽의 축조방식
 - 나. 보루의 점유시기
 - 다. 보루의 성격
5. 맺음말

* 본 논문은 한국고고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2017년 제4회 고구려 주니어 포럼에서 발표한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 발굴성과와 의미」를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 한성을 공함하고 551년 나·제 동맹군에 의해 추출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한강유역은 고구려의 형향에 있었다. 이와 관련된 고구려의 유적은 아차산·용마산·망우산 일대 보루군으로 잘 남아있는데, 현재 17개소의 보루가 사적 제455호로 지정되어 관리 받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점유기간과 백제의 왕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90년대까지도 아차산 일대에 관방유적은 백제와 관련된 관방유적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유적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았다. 특히 1977년에는 현재 고구려의 관방유적으로 알려진 구의동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단은 유구의 성격을 백제 고분의 빈전과 같은 시설로 추정하였으며,¹⁾ 이후 구의동 유적은 멸실되었다.

하지만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토기의 존재가 확인되고 구의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의동 유적은 한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군사 요새 중 하나로 재보고 되었다.²⁾ 이를 계기로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존재가 인지되었으며, 1994년 이후 여러 번의 학술조사를 통해 아차산 일대를 비롯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이르는 고구려 보루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1997년 아차산 4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아차산 보루군을 비롯한 한강 북안의 여러 고구려 보루에 대한 조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 발표문은 아차산 일대 관방유적이 고구려의 보루군으로 인식되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진행되어진 아차산 일대와 경기도 북

1) 華陽地區發掘調查團,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查報告』, 1977, 14쪽.

2) 서울大學校博物館, 『九宜洞-토기류에 대한 고찰』, 1993.

부지역까지 이르는 고구려 관방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그 의미와 연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자료 축적

가. 1994년 이전 자료

아차산 일대로 대표되는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연구자들은 기존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아차산 일대 보루 군을 구체화 시켰는데, 기존 자료는 크게 일제강점기 이전과 80년대 몽촌토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제강점기

아차산 정상부의 성곽에 대한 자료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그 기록이 확인되는데, 조선후기에 간행된 『大東輿地圖』에는 아차산에 ‘양진성(楊津城)’과 ‘아차산고성(峨嵯山古城)’ 두 개의 성곽이 표시되어 있다.³⁾ 『大東地志』 卷3 楊州條에 따르면 양진성은 광나루 위쪽 아차산 동쪽에 있으며 풍납토성과 마주하고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아차산성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차산고성은 산정에 있으며 유지(遺址)가 있다고 표현 하였으며, 아차산 정상부에 있는 아차산 3보루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아차산에 아차산성 이외의 성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고적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1919

3)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 52~53쪽.

년 4월에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장에게 제출된 『독도부근백제시대유적조사약보고(蘓島附近百濟時代遺蹟調查略報告)』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와 함께 조사된 유적지의 위치와 간략한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도면을 발행 하였는데, 이 중 현재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에 해당하는 것이 14개소 가량이다. 도면의 설명에 의하면, 각 보루의 석축성벽과 홍련봉 2보루나 아차산 1보루의 함몰지에 대한 기록, 아차산 1·3보루에서 토기편이 수습현황 등 내용은 매우 소략하지만 보루의 위치와 양상은 현재 확인된 보루와 일치한다. 이후 1942년에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내부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해방 이후 연구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2) 몽촌토성 고구려 토기와 구의동 보루

해방이후 80년대 이전까지 아차산 정상부의 성곽에 대한 간헐적인 보고가 있었으나⁴⁾, 한성기 백제 성곽으로 인식되었으며 추가 연구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1977년에는 풍납토성의 한강 북안에 성동구 구의동 일대가 화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설정되면서 구의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발 53m 가량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구의동 유적은 출입구가 있는 원형의 수혈유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부 등의 유구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조사 되었는데, 수혈 내부에는 온돌과 배수구 시설이 있고,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⁵⁾ 그러나 당시 유적은 백제의 고분으로 추정 보고 되었으며, 발굴조사 이후 멸실되었다. 하지만 80년대에 이루어진 몽촌토성의 발

4) 林炳泰,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年代」,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5) 서울大學校博物館, 1993, 앞의 책, iii쪽.

굴조사에서 5세기 중엽 이후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면서, 구의동 유적의 토기들은 태토나 기형, 제작기술상으로 백제 토기와는 다른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후 구의동 유적은 한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군사 요새 중 하나로 재보고 되었다.

몽촌토성은 백제 한성기의 주요 거성의 하나로, 조사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차례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토성은 둘레가 약 2,409m으로, 판축기법으로 축조되었다. 토성의 내부에서는 대부분 백제의 시설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일부 고구려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은 처음으로 1987년 몽촌토성 동북지구 발굴조사에서 1호 건물지의 2층에서 적갈색연질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으며, 조사단은 이 토기를 집안 지역 고구려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평저를 가지며 긴 몸통에 대상과수가 붙는 것과 유사한 기종으로 보았다.⁶⁾ 1988년 동남지구에서 5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고구려 토기 광구장경사이용이 출토되었으며, 이와 같이 니질 태토에 표면이 흑색, 흑회색, 황갈색 등의 색조를 갖는 토기를 구의동유형으로 명명하였다.⁷⁾ 보고서에서는 이 토기를 집안의 적석총과 석실분의 편년에 따라 4세기 초~5세기 말 사이로 편년하였으며, 백제와 접촉관계를 고려하여 5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하였다. 이후 1989년 몽촌토성 서남지구에서 조사된 고지대의 지상 건물군 중 집안지역 동대자 후기의 ‘ㄱ’자 온돌유구와 같은 구조를 갖는 고구려 온돌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온돌건물지는 백제시기의 층 위에 두껍게 성토다짐을 하고 축조되었으며, 출토되는 토기의 연대를 토대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고구려 건물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근거로 기존에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6)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東北地區發掘調查報告』, 1887, 58쪽.

7)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東南地區發掘調查報告』, 1988, 163~196쪽.

계통의 토기들을 ‘구의동유형’에서 ‘고구려토기’로 정정하였다.⁸⁾

나. 1994년 이후 지표조사

이렇듯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고 구의동 유적이 재 보고되면서 한강유역의 고구려 관련 유적이 인지되고, 1994년 아차산 일대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관방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들이 발표되었다.⁹⁾

1990년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아차산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내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아차산성과 아차산 장성을 백제시대 시설로 보았으며, 장성과 보루를 구분하여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아차산과 용마산 봉우리의 정상부에서 확인되는 석축성벽에 대하여 토석혼축의 망대지로 인식하고 관측을 위해 설치된 평탄한 공지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¹⁰⁾

이후 1994년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에 의해 아차산 일대의 관방시설과 고분 등에 대한 고고학적인 입장에서의 지표조사가 진행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보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¹¹⁾ 기존 몽촌토성과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연구를 바

8)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 1989, 30~31쪽.

9) 윤성호, 앞의 논문, 2017, 54~55쪽. 학계의 노력 이외에도 향토사학자 김민수는 1989년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아차산 일대에 소규모 성곽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과를 간단한 도면과 함께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논문집을 간행하였다. 또한 이를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유적지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金玟秀, 『阿且山城의 再發見과 簡考』, 1990.), 아차산의 관방시설에 대한 용어를 보루성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金玟秀, 『漢江流域에서의 三國史의 諸問題』, 『九里文化院』, 1994.).

10) 문화재관리국, 『서울長城 遺蹟調查 概略報告書』, 1990, 9~10쪽.

11) 이 무렵 연구자들은 아차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고구려의 관방유적들을 작은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堡壘(또는 보루성)’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비록 보루라는 용어가 근대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었으나, 아차산 일대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성이 집중적으로



도면 1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군 현황도

분포된 독특한 양상을 잘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대규모 성곽과 연결된 작은 규모의 정보에까지 보루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탕으로 아차산 일대의 관방시설을 고구려유적으로 인식하였다.¹²⁾

한편 아차산 일대 이외에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파주와 연천의 군사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보고서를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발행하였으며,¹³⁾ 1998년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양주시의 문화재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고고학적 조사결과에도 고구려 성곽의 분포가 파악되었다.¹⁴⁾ 이와 같이 한강유역에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존재가 확인되고, 이 후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통하여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3.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발굴조사 현황

1997년 구리시와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아차산 일대와 경기북부지역에 이르는 한강 하류지역의 여러 고구려의 성곽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한강이남지역인 금강유역에서도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관방유적이 조사되었다. 비록 최근들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짧은 시간동안 여러 유적에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강과 인접해 있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함께, 경기북부지역과 한강이남지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현재까지 발굴조사 성과를 각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12) 구리시·구리문화원,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1994.

13)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1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시,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가. 아차산 일대

1) 아차산 4보루¹⁵⁾

아차산 4보루는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임을 인지하고 이루어진 첫 발굴조사로서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97년~1998년까지 이루어졌으며, 고구려 보루에 대한 자세한 구조 및 성격에 대해 자세히 밝혀지게 된 첫 조사로 볼 수가 있다. 이후 성벽에 대한 복원 정비를 위해 2007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보루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차산 능선의 정상부 중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벽의 둘레는 256m, 내부 면적은 2,256㎡ 정도로 아차산 3보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발굴조사 결과 내부에서는 건물지 7기, 저수시설 2기, 온돌시설 13기, 간이 대장간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벽은 능선 정상부의 외곽을 따라 축조되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동쪽 성벽은 20~30cm 두께의 돌을 정면 너비 20~30cm의 크기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쌓은 반면, 북벽은 10~40cm의 부정형의 석재를 사용하는 등 구간별로 축조 수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는 총 5개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남쪽 치의 경우 이중의 구조로서 들여쌓기 방식의 굽도리가 특징적이다.

2) 시루봉 보루¹⁶⁾

시루봉 보루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99년~2000년까지 1차

15)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16)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 『시루봉 보루II』, 2013.

조사가 진행 되었으며, 당시 진행에서 치 1개, 대형 건물지 1기, 소형 건물지 9기, 저수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2009년에 보루의 복원 정비를 위해 성벽을 위주로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3개의 치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2층의 목책, 서북쪽 성벽과 나란히 설치된 이중 석렬구조 등이 확인되었다.

3) 홍련봉 1보루¹⁷⁾

홍련봉 1보루는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 의해 2004년에 1차 조사가 진행 되었으며, 기단건물지, 저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내부 시설과 성벽일부 구간이 조사되었다. 특히 1호 건물지와 12호 건물지에서 다량의 기와와 함께 연화문와당이 6점 확인되어 홍련봉 1보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2년~2013년에는 복원정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성벽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벽은 2개의 면을 가진 겹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성벽에서는 주동(柱洞)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벽이 유실된 구간에서는 신라 석곽묘가 2기가 확인되었으며, 성벽렬을 따라 영정주혈로 추정되는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또한 2보루와 사이를 잇는 도로시설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는데, 3차 발굴조사에서 도로시설과 관련한 노면 및 노체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도로시설임을 확인하였다.

4) 홍련봉 2보루¹⁸⁾

홍련봉 2보루는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 의해 2005년에 평

17)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發掘調查報告書-』, 2007a.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홍련봉 1·2보루』, 201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홍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18)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2堡壘-發掘調查報告書-』, 2007b.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위의 책, 201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위의 책, 2017.

탄지에 1차 조사가 진행 되었으며, 보루의 평탄지(고대지) 내부의 시설과 함몰지에 대한 트렌치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조사결과 평탄지에서 건물지 4기, 출입시설 3기, 저수시설 2기, 집수정 1기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성벽과 함몰지에는 총 7개의 지점에서 트렌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함몰지의 내부시설 일부와, 성벽의 축조 방식,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2차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대략적으로 확인된 함몰지와 성벽에 대한 정확한 구조와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성벽의 전구간에 대한 노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황의 내부조사와 평탄지의 노출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보루의 내부에는 건물지 11기, 계단시설 3기, 배수시설 3기, 저장시설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평탄지가 편축식(또는 산탁식)으로, 함몰지의 경우 협축식으로 축조되었다. 외부시설로는 7개의 치가 확인되었으며, 고구려 보루 중 처음으로 외황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내부 시설과 각 유구간의 층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보루 내부시설은 최소한 2번 이상 개축을 거치며 재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아차산 3보루¹⁹⁾

아차산 3보루는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 의해 2005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루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며, 유적의 전체 둘레는 431m, 내부 면적은 10,543m² 정도로 아차산 보루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사결과 외곽의 석축 성벽과 계단식 출입시설, 온돌을 갖춘 건물지 9기, 저장시설 및 방앗간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여 다소 조잡하게 축조했으며, 2m 높이로 남아 있다. 남쪽 성벽에는 장방형으로 돌출

19)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峨嵯山 第3堡壘-發掘調查報告書-』, 2007c.

시켜 만든 계단식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계단 끝부분에서 기둥자리가 확인됨에 따라 문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 내부에서는 ‘ㄱ’ 자형 또는 직선형 온돌을 갖춘 건물지가 다수 노출되었다. 특히 방아화와 방아채의 쌀개를 걸었던 불씨가 함께 배치된 상태로 방앗간 유주가 확인됨에 따라, 보루에서의 식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6) 용마산 2보루²⁰⁾

용마산 2보루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5년~2006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보루의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로, 긴 장타원형의 봉우리를 둘러싼 석축성벽을 쌓았는데, 정상부에서 14m 가량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보루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벽의 전체 연장 길이는 150m 이상이며, 전체 면적은 1,350m² 정도이다. 내부에는 건물지 4기, 부속시설 1기, 저수시설 2기, 저장시설 1기, 창고시설 1기, 수혈 1기 등의 시설을 하였다. 특히 용마산 정상부로 향하는 길목에 외곽 통로로 추정되는 3중 구조의 석축시설이 확인되는데, 1차 구조의 치에 추가적으로 2차례 석축 구조물을 추가하여 출입 및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경기북부지역

1) 호로고루²¹⁾

연천에 위치한 호로고루는 토지박물관에 의해 4차례 발굴조사가

20) 서울大學校博物館, 『龍馬山 第2堡壘 發掘調查報告書』, 2009.

2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查報告書)』,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Ⅲ (第2次 發掘調查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Ⅳ (第3·4次 發掘調查報告書)』, 2014.

진행되었다. 2001년 1차 조사에서 성벽의 축성시기와 축조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동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차 조사에서 성 내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우물지, 건물지, 지하식 벽체 건물지(집수시설) 및 목책유구를 확인하였다. 2007년에 호로그루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3차 발굴조사로 2009년에 지하식 벽체건물지, 목책유구, 기와집중 퇴적지 1, 2호가 조사되었다. 3차 조사에서 지하식 벽체 건물지의 하부에 확인된 목재시설에 대한 보존처리 대책 문제로 일시 중지 후 2011년~2012년 4차 발굴조사에서 지하식 벽체건물지와 성벽 해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벽은 바닥을 정지하고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 한 후, 성벽의 중심부는 판축으로 조성하고 성벽의 안팎을 석축으로 마무리 하였다. 체성부의 바깥쪽은 성벽 기저부부터 보축성벽을 체성부의 중복부까지 덧붙였으며 다시 보강토를 덧붙여 쌓은 구조이다. 성벽의 내부에는 석축성벽의 축성공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둥홈이 약 2m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의 기저부에서 중복되어 확인된 2열의 목책열은 총 13기가 확인되었으나, 성벽에 의해 결실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중목책열이 19m 이상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목책열과 성벽은 약 1.5~2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진행방향이 서로 어긋나있고, 목책열이 성벽 기저부 다짐층의 아래에서 중복되어 확인되는 등 시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당포성²²⁾

연천에 위치한 호로그루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 의해 동벽 일부구간에 대한 1차 조사 2002년~200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2)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경기도박물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2005년~2006년까지 성 내부 평탄지에 대한 시굴조사와 동벽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의 기저부와 내벽은 점질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외벽과 보축성벽은 석축으로 쌓았다. 외벽에는 환도산성과 대성산성에서 확인되는 것과 비슷한 수직 기둥홈이 확인되며, 외벽 바깥으로 외황이 확인된다.

3) 은대리성²³⁾

은대리성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2003년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은대리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곽식 구조로, 동벽의 기단부 및 중심보루는 토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 내외면에 석축을 보강하고 배수시설을 위한 구를 설치하였다.

4) 무등리 2보루²⁴⁾

무등리 2보루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10년~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루는 구릉 정상부의 사면을 석축성벽으로 둘러쌓고, 다시 내부에 사면을 따라 석축을 쌓아 만들었다. 조사에서는 남한 내의 다른 보루들과는 달리 대강 치석된 석재와 점토를 활용하여 성벽을 쌓고, 외부에는 점토를 덧대었으며, 기저부에는 영정주혈이 확인된다. 보루는 출토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 유적의 폐기상황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돌화 옆에서 확인된 주저앉은 채 발견된 찰갑세트와 다량의 탄화곡물, 인위적으로 훼손된 성벽 등을 볼 때 보루가 인위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24)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5) 천보산 2보루²⁵⁾

천보산 2보루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12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고구려 시기에 조성된 목책용 수혈, 주혈, 치 1기, 온돌건물지 3기, 집수 시설 1기,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목책용 수혈은 치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확인되는데, 선후관계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치성벽은 내탁식으로 쌓았으며 기반암면을 부분적으로 다듬어서 벽체를 쌓았다. 건물지는 석축으로 경계를 하고 내부에 흙다짐하여 조성하였다.

6) 전곡리 유적 목책유구²⁶⁾

전곡선사박물관부지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은 2006년 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전곡리 토성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토루에 대해 절개 및 노출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당구간에서는 토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2008년에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곡선사박물관부지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시기의 목책과 건물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는 북벽과 동벽구간을 추가로 절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토성과 관련된 인공적인 토루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남쪽 일부 지역에서 한탄강변 단구 지형을 이용한 소규모 고구려의 목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26) 서울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10.

서울대학교박물관, 「부록 5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7) 무등리 1보루²⁷⁾

2017년에 실시된 무등리 1보루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동쪽과 서쪽 성벽에 대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은 경사진 암반을 1m 가량 깎고 석축을 쌓았으며, 하단부에는 성벽 외면을 점토로 덧붙여 보강하였다. 성벽 외곽과 30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길이 1.5m, 너비 1m의 기둥구덩이가 1m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다. 한강이남지역

1) 대전 월평동 산성²⁸⁾

대전 월평동의 목책유구는 월평동 산성의 남쪽에서 약 85m 가량 떨어져 확인되었다. 목책은 너비 5m 가량의 호(壕)와 함께 목책유구와 같은 장축 방향을 갖는 석축성벽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등 청원 남성골 산성과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월평동 산성 성벽의 하단부 성토다짐층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데, 호·옹, 시루, 동이, 접시, 완 등의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 구성을 갖는다. 이는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청원 남성골 유적과 비슷한 시기에 월평동 산성 일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남성골 산성²⁹⁾

청원 남성골 산성은 세종특별자치시(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 정상부에 2중 목책구조로 내·외곽

27)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7.

28) 충청문화재연구원, 『大田 月平洞山城』, 2003.

29) 충북대학교박물관,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충원문화재연구원, 『淸原IC~芙蓉 間 道路工事區間內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으로 이루어진 성곽이다. 목책성벽은 나무기둥으로 귀틀을 짜서 벽체를 구성하고 그 위에 점토를 피복하였다. 외벽을 이루는 바깥열 목책은 일부 구간에 일정한 높이까지 쌓은 할석을 쌓았으며, 내곽에 위치한 문지 주변에도 석축구간이 확인된다. 치 성벽은 내곽에 1개, 외곽에 2개가 목책으로 조성되었다.

3) 안성 도기동 유적³⁰⁾

안성 도기동 유적은 2015년 안성 뉴타운지구 택지개발부지 내 발굴조사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책성과 수혈,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석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목책성은 능선 정상부와 사면부에서 부분적으로 4개 구간이 확인되었다. 분포상 계곡부를 감사는 포곡식 성으로 나지막한 토루를 구성하여 성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목책을 세운 구조이다. 목책은 기본적으로 내벽측과 외벽측이 돌아가는 이중 목책구조이며, 원형의 목책공으로 구성되어있다. 목책공 주변의 부정형의 구상유구에서는 타날문토기, 파수부잔, 삼족기, 고배 등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1, 4구간 목책렬 주변과 9호 수혈에서는 파수부 토기, 뚜껑, 흑색호 구연부 등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4.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고구려 보루의 축조방식과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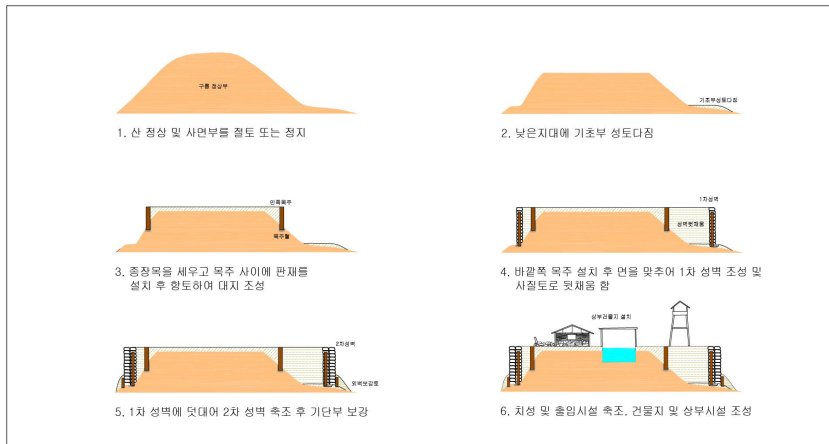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90년대 후반 아차산 4보루에서 첫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남한지역의 다른 보

30) 기념문화재단연구원, 『안성 도기동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15.

루들이 추가로 조사되면서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자료가 점차 축적되었다. 조사 초기 성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성벽을 포함한 전면 발굴성과가 많이 확인되면서,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쟁점이 아직 남아있어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선 지금까지 조사로 드러난 성과에 따라 보루의 축조방식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 성벽의 축조방식

남한지역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 성곽은 구의동 보루를 포함하여 아차산 4보루를 시작으로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무등리 2보루까지 총 2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성벽에 일부 지점에 대한 트렌치 조사가 이루어진 곳도 있으며, 성벽 전체를 노출 조사한 유적도 확인된다.



도면 2. 고구려 보루 축조과정 모식도(홍련봉 1보루)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부 평지에 조성된 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둘레 300m 내외로 산 정상부에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산 정상부에 석축을 두르고 내부 평탄지에 건물지와 저수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 형태이다. 내부 평탄지는 원지형을 이용하거나 성토하거나 판축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시설을 하였다. 성벽은 이러한 토축부에 석축이 덧대어져 있는 형태이다. 다만 성벽 기저부와 내부에 원형의 주혈이 확인되는데, 이 주혈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몇 개의 견해가 나누어진다.



사진 1. 홍련봉 1보루 주혈군



사진 2. 홍련봉 1보루 주동



사진 3. 홍련봉 2보루 성벽 단면

고구려 성곽 조사 초기에는 이러한 주혈을 성곽이 조성되기 전 단계로 이해하고 목책시설의 흔적으로 보았다. 2007년 아차산 4보루

와,³¹⁾ 2009년~2010년 시루봉 보루의 성벽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지며, 석축성벽 바로 아래에서도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양시은은 이 주혈을 석축성벽 이전단계의 목책공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양시은은 무등리 2보루 보고서와 본인의 논저를 통해 이와 같은 견해를 철회하였으나,³²⁾ 호로고루에서 석축성벽과 구분되어지는 열을 가진 전단계의 목책공이 확인되고, 전곡리 목책유구, 청원 남성골 산성, 안성 도기동 유적 등의 순수 목책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홍련봉 1·2보루의 성벽조사에서 성벽 기저부에서 성벽렬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주혈이 확인되고, 특히 2보루 함몰지 협축성벽의 적심부에서 횡장목흔과 함께 관측된 토축부가 조사되어 성벽 축조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홍련봉 1보루 서쪽 성벽 유실 구간에서 성벽렬을 따라 노출된 주혈의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이 보이며, 일부 구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성벽의 외면에 노출된 주동(柱洞)이 확인된다. 이 주혈과 주동은 성벽 축조 범위를 따라 1.5~2.0m 정도 간격을 보이며 성벽과 동시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목주들은 성벽이나 성곽 내부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쌓은 토축과 성벽 모두를 지탱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광주는 홍련봉 보루 성벽의 축조방식을 토축부를 쌓아 올린 후 석축을 덧붙여서 축조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 같은 공법을 ‘토심석축 공법(土芯石築工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공법은 집안의 국내성이나 평양의 대성산성에서도 보이는 고구려의 기본적인 축성법으로, 연천의 호로고루나 당포성 역시 비슷한 공법으로 축조되었다고 하였다.³³⁾ 다만 최종택과 필자는 이와 같은 구조에 의견을 같

3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9, 143쪽.

32) 양시은, 『고구려 성 연구』, 2016, 진인진.

33) 심광주, 「淸州 父母山城과 周邊 堡壘의 築城技法」, 『한국성곽학보』 24, 2013, 19~20쪽.

이하면서도 공정 순서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성벽렬과 내부에 서 확인되는 주혈에 목주를 세우고 횡장목을 사용하여 결구 한 다음 석축 성벽과 동시에 사질토를 판축하며 쌓아 올려 뒷채움을 한 것으로 보았다.³⁴⁾ 홍련봉 2보루 함몰지 협축성벽의 단면 조사에 따르면 사질토를 번갈아가며 쌓은 토층은 외벽과 내벽의 석축에 바로 연결된 형태를 보이는데, 외면을 이루는 석축과 적심을 이루는 판축이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구려 보루의 체성벽에서 확인되는 주동과 성벽 기저부에서 확인되는 주혈은 석축성벽이 조성되기 이전단계의 목책시설 보다는 토축부를 조성하기 위한 영정주공이며,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성벽이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의견으로 안성현은 토성을 개축하여 석축 성벽을 조성하였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홍련봉 2보루의 석축 성벽 안쪽 토축부를 보루가 토성으로 초축된 흔적으로 해석하였다.³⁵⁾ 그는 토성의 근거로, 토축부와 석축부 사이의 절개선이 확연할 뿐 아니라, 홍련봉 1, 2보루와 시루봉보루, 아차산 4보루 성벽의 경우 기저부 하단의 다짐토 상부에 석축 성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축부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석축 성벽을 덧대어 쌓았기 보다는 석축부가 설치된 부분만큼 토축부를 절개한 다음 석축 성벽을 축조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토성벽의 수축부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홍련봉 2보루에서는 성벽 곳곳에서 목주흔과 함께 석축 성벽의 안쪽 토축부에서 확인되는 횡장목의 흔적을 통해 이를 순수판축토성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보루에서 확인되는 석축 성벽은 토성의 토축부를 완만한 경사로 절개한 다음 쌓고 있으므로,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순수판

34) 최중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194~202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앞의 책, 2015, 399쪽.

35) 안성현, 「홍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5, 2016.

축토성'의 흔적이기 보다는 '관축'의 흔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보루의 내부 대지를 조성하거나 협축성벽의 체성부를 사질 토로 채우기 위해 선택한 축조 방법이 성질이 다른 여러 사질토를 판자 사이에 넣고 흙을 다져 쌓는 공법을 택한 것이다. 즉 이러한 관축의 흔적이 토성이 존재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관축 기법을 사용한 축조 방법의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보루의 점유시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의 연대는 고구려가 475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551년까지로 대략적인 연대를 상정하였는데, 초기 아차산 일대 보루를 조사하면서 보루의 조성 시기를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전진기지의 성격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성과가 늘어나면서 보루의 대략적인 사용 시기는 6세기 전반 이후로 소급되는 것에 이견이 없는듯 하다.

반면 보루의 점유형태와 사용의 하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김영섭은 신라가 568년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설치 하였으며, 590년 온달의 출정, 603년 북한산성 공격한 점을 들어 551년에 고구려 군이 한강 유역에서 물러났으나, 568년부터 604년까지 고구려가 다시 한강 하류지역까지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이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동안 반복적으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⁶⁾

또한 이형호는 연천 호로고루 출토 고구려 토기를 기준으로 아차

36) 김영섭,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의 재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30~31쪽.

산 보루군의 토기를 판단해볼 때, 아차산 보루군은 발표자의 견해와는 달리 6세기 중엽에 축조되어 6세기 후엽까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용마산 보루군과 시루봉 보루는 6세기 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475년부터 551년까지 지속적으로 한강유역을 영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475년부터 598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남하와 철수를 반복하였고, 아차산 보루군이 완성되어 하나의 방어체계로 운영된 시기는 6세기 중엽이 아니라 6세기 후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헌기록에서 등장하는 529년 오곡지원 전투에서 승리한 고구려 군이 한강 이북의 아차산까지 진출하였고, 당시 구의동 보루 등을 축조하였으나 551년 나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가, 신라가 568년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설치하면서 한강 이남으로 군사적인 거점을 옮겼을 때 고구려가 한강 이북의 아차산 보루군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³⁷⁾

이 밖에도 최근에는 홍련봉 2보루에서 채집한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놓고 아차산 보루군의 활용 연대에 대한 또다른 해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홍련봉 2보루 2개 지점(8호 건물지 인근, 2호 저수시설 인근)에서 채집된 40개의 목탄시료를 국내외 5개 기관에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의뢰하여 얻은 측정치를 이상값을 제거하는 등의 통계처리를 거쳐 $1490 \pm 12\text{BP}$ 라는 합의값을 도출한 다음 이를 환산하였더니 549~607년(95.4%)이라는 추정 연대를 얻었다고 한다(J. Choi et al, 2017, Radiocarbon Dating and the 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Hongryeonbong Fortress II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Central Korea,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37) 이형호,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96~97쪽.

42(1), pp.1-12.). 이러한 추정 연대는 500~551년이라는 그간의 편년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채집된 10개의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은 6세기 전반의 연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8호 건물지와 2호 저수시설 인근에서 채집된 목탄 시료의 탄소연대를 근거로 흥련봉 2보루 전체가 6세기 후반에 점유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8호 건물지를 포함한 일부 유구의 연대가 늦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최종택은 흥련봉 1보루의 건물지 일부가 신라에 의해 재사용되었거나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흥련봉 2보루 5호 건물지 역시 고구려가 철수한 이후 신라가 재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호 저수시설의 경우 저수시설이 함몰된 이후 의도적으로 매납한 신라 토기가 발견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라에 의해 재사용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아차산성이나 흥련봉 2보루에서 6세기 중·후반경의 신라 토기가 확인된 적이 없고 모두 7세기 이후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흥련봉 2보루의 8호 건물지는 7세기 이후 신라에 의해 재사용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최종택, 2014, 「역사시대 고고자료의 해석과 방사성탄소연대 -흥련봉 2보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자료집). 그러나 이후 논문(J. Choi et al, 2017, 앞의 책)에서는 551년 이후 고구려가 북쪽으로 후퇴한 이후 신라가 일시적으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6세기 후반에 신라의 일시적인 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³⁸⁾

38) 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의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2017, 68~69쪽.

다. 보루의 성격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들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 475년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 설치되었으며, 관방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도 점령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새로 편입된 영역에 대한 지배방식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군현명 기록과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관방유적의 분포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강유역에 고구려의 점유형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데, 군사적 거점만 설치하고 실질적 지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과,³⁹⁾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군현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영역지배를 했다는 의견이다.⁴⁰⁾ 하지만 필자는 한강유역 보루의 성격을 통해 이 지역이 점, 선 형태의 거점지배에서 면형태의 영역지배⁴¹⁾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았다.⁴²⁾ 목책 단계에서 폐기된 한강이남지역의 고구려

-
- 39)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2.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학연구소, 2002.
- 40)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郷土서울』 66, 서울特別史編纂委員會, 2004.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8.
- 41) 김현숙(김현숙, 『고구려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에 따르면 고구려는 3세기 말 중앙집권 통치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영토에 대한 지배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선으로 이루어진 교통로상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교통로상에 설치된 크고 작은 성에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점적인 지배형태를 띠게 되며, 이러한 거점적 지배형태는 4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더욱 늘어난 영토의 확대에 인하여 거점이 증가하고 운영의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점적 지배 방식에서 면적 지배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하위 단위의 지방관들이 통치하는 복수의 단위지역을 상위 지방관이 통치하는 권역지배 형태로 전환되고, 장수왕대 평양천도와 함께 군현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제를 개편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 42)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92~93쪽.



사진 4. 홍련봉 1보루 출토 와당

관방시설과는 달리, 한강유역의 보루에서는 홍련봉 1보루에서 기와 건물지가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官’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치소의 단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련봉 보루 주변에서 더 이상 복수의 치소가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 선형대 지배 단계로 이행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달리 임진강 유역의 관방시설들은 호로그루 이외에도 기와가 출토되는 다수의 치소 추정지가 확인되는 등 권역지배 형태로의 전환이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은 아차산과 용마산, 망우산 일대에 보루군으로 남아 있는데, 1994년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된 이후 아차산 일대에서는 다수의 보루가 발굴되었으며, 현재 사적 제455호로 지정되어 관리 받고 있다. 나아가 경기 북부일대와 금강유역에서도 일부 고구려의 관방유적이 조사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되었으나, 그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유적을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추가하였다.

조사 초기 성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성벽을 포함한 전면 발굴성과가 많이 확인되면서,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부 평지에 조성된 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둘레 300m 내외로 산 정상부에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산 정상부에 석축을 두르고 내부 평탄지에 건물지와 저수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 형태이다. 성벽은 대부분 토축부와 석축부로 구분이 되었는데, 국내성과 장수산성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성곽 축조수법이다. 다만 축조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발굴조사와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한강유역 보루의 점유시기에 관해서는 6세기 초에서 중반까지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연구자에 따라 7세기 초까지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보루는 관방시설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官’으로서 기능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신라와 백제에 의해 좌절 되었으나 고구려가 이 지역을 영역지배로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 2019. 10. 1,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고구려, 관방시설, 산성, 보루, 보루군, 한강유역, 아차산, 축조방식

<참고문헌>

1. 연구서

양시은, 『고구려 성 연구』, 2016, 진인진.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2013, 서경출판사.

2. 보고서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 - 시굴조사 보고서-』, 2008.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發掘調査報告書-』, 2007a.
, 『紅蓮峰 第2堡壘-發掘調査報告書-』, 2007b.

, 『峨嵯山 第3堡壘-發掘調査報告書-』, 2007c.

구리시·구리문화원,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1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문화재관리국, 『서울長城 遺蹟調査 概略報告書』, 1990.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東北地區發掘調査報告』, 1887.

, 『夢村土成-東南地區發掘調査報告』, 1988.

, 『夢村土成-西南地區發掘調査報告』, 1989.

, 『九宜洞-토기류에 대한 고찰』, 1993.

,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

,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龍馬山 第2堡壘 發掘調査報告書』, 2009.

,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 『시루봉보루Ⅱ』, 2013.

,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 「부록 5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7.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 ,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중원문화재연구원, 『淸原I.C~芙蓉 間 道路工事區間內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 충청문화재연구원, 『大田 月平洞山城』, 2003.
- 충북대학교박물관,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 華陽地區發掘調査團,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 1997.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홍련봉 1·2보루』, 2015.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시,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III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IV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10.

3. 논문

- 김영섭,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의 재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鄉土서울』 66, 서울特別史編纂委員會, 2004.
-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2.

- 심광주, 「淸州 父母山城과 周邊 堡壘의 築城技法」, 『한국성곽학보』 24, 2013.
- 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의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2017.
- 林炳泰,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年代」,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
- 안성현, 「홍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5, 2016.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이형호,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학연구소, 2002.
-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8.

Construction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Goguryeo Forts in the Basin of Han river

Lee, Jung-bum

A group of forts over Mt. Acha area is representative of ruins of Goruryeo in the Basin of Han River basin, and 17 forts of them are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455 and taken care of. However, due to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occupancy by Goruryeo and geopolitical features that the royal castle of Baekje was located in that area, in the past, it was recognized as defense outpost remains related to Baekje, and the interest for the ruins was considerably low.

The earliest record of fortress over Mt. Acha is seen in Daedongjiji, which was published geographical bo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under the name of Mt. Acha old fortress. Meanwhile the full-scale record had been don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lthough relatively detailed locations of the sites were recorded at that time, it was kept as internal data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and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As a result, the data have not been widely used for research after liberation. However, in the 80's, as the existence of Goguryeo earthenware was confirmed in Mongchontoseong and the previously investigated sites of Guui-dong were reconsidered as Goguryeo fortress, the existence of Goguryeo sites was newly recognized in the Han River basin.

Since the academic research starting in 1994, the successful results of the extensive excavation on the walls and internal facilities of various forts have been added, and various studies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guryeo forts have been conducted.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Goguryeo forts in South Korea is that they were mostly small scale structures with a circumference of more or less 300 meters on the top of mountains, except for the fortress built on some plains, and they had the facilities such as building areas and

reservoirs on the flatland surrounded by stone walls along the top of mountains. Most of the walls are divided into soil and stone parts, which is typical of Goguryeo's forts construction as seen in Gooknae fortress and Jnangsoo fortress. Mean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opinions regarding the construction method so far. In this regard, further excavation and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additi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Goguryeo had occupied Hangang river basin until the mid-sixth century. However, some researchers believe the occupancy period can be extended to the early seventh century. As well as the basic functions as a defense facility, the forts seem to have performed as a 'Government office'. . Although it was thwarted by Silla and Baekje, it seems that Goguryeo intended to dominate the area as a territory.

Keywords : Goguryeo, Military facilities, Mountain fortress, Fort, Hangang River, Mt. Acha, Construction Method